

「구미아시아연극제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15회째 개최해 온 구미아시아연극제 개최 규모를 확대하여 국제 연극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낭만문화도시 구미 홍보
-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기술 활용하여 문화예술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 무 명: 구미아시아연극제 ※ 단년도 연례행사
- 추진근거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2) 「구미시 문화예술진흥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」 제5조
 - 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○ 위탁기간: 2025. 1월 ~ 2027. 12월(3년)

○ 소요예산: 연 150,000천원(도비 45,000 시비 105,000)

(단위: 천원)

전체예산	운영비	홍보비	인건비
150,000	8,800	16,400	124,800

○ 위탁사무내용

- 1) 구미아시아연극제 총괄 운영
- 2) 연극제 기획 및 국내외 연극공연팀 섭외, 무대설치 등 운영
- 3) 예산수립 및 사업비 집행, 관계기관 협력 등

○ 위탁조건

- 1)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소재지를 두고 문화예술진흥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2)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, 책임성,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3) 최근 2년 이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관련분야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- 1) 선정방법: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
- 2) 평가내용: 사업계획, 전문성,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
- 3) 평가방법: 사업계획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○ 추진실적(2024년도)

- 1) 기 간: 2024. 9. 3.(화) ~ 9. 8.(일) / 6일간
- 2) 장 소: 소극장 공터다, 공유공간 함께한DA
- 3) 인 원: 1,214명
- 4) 사 업 비: 47.7백만원(도비 14.4, 시비 33.3)
- 5) 주 관: (사)한국연극협회 구미지부(대표 김영심)
- 6) 내 용: 해외공연 2개, 국내공연 4개, 작은극장 공연 6개
- 7) 행사일정

구분	일시	장소	작품명	극단명	비고
공식공연 (50~80분)	9. 3.(화) 19:30	소극장 공터다	룸 아카네	극단 타이오 매직	일본
	9. 4.(수) 19:30		하이타이	극단 도시락	서울
	9. 5.(목) 19:30		인간을 보라	극발전소 301	서울
	9. 6.(금) 19:30		섬	극단 현장	진주
	9. 7.(토) 19:30		오늘, 엄마가 죽었다	극단 아오키리미칸	일본
	9. 8.(일) 19:30		예비예술인 기획공연	소행성 P-ART24	전국
작가극 (30분)	9. 3.(화) 18:30	공유공간 함께한 DA (소극장 공터다 2층)	관객참여형 1인 오브제극 <금시계>	숨	군산
	9. 4.(수) 18:30		테이블 오브제 인형극 <지구를 지켜라>	제라진	서울
	9. 5.(목) 18:30		테이블 인형극 <고마우체국>	줄리	안양
	9. 6.(금) 18:30		복합 인형극 <호랑이 뱃속 구경가유!>	부영이	대전
	9. 7.(토) 18:30		인형극 <인형할머니만 모르는 이야기>	쑥쑥	파주
	9. 8.(일) 18:30		테이블 인형극 <할아버지와 썰매>	윈터	구미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구미시 문화예술진흥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」 제5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○ 예산조치: 2025년도 예산편성 요구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국내·외 연극팀 초청, 연극제 기획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구미아시아 연극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2025년부터 초청 연극 수를 늘려 개최 규모를 확대할 예정으로,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의 연극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작년 대비 산정 예산액이 증액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예술 연극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, 관람 규모가 작은 소극장에 한정 짓지 않고 문화예술회관 등 관내 공연장의 대관으로 시민의 관람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